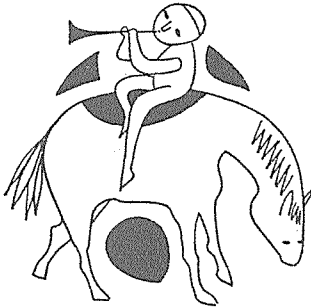


# 돌연사(突然死)(1)



황인홍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 1. 새로이 주목받게 된 돌연사

얼마 전에 어떤 종합병원의 중견의사가 연구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화제에 오른 적이 있다. 평소에 건강했고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였기에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과 경각심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경우처럼 주목을 받지 않았어도 그간에 이런 종류의 죽음은 돌연사(突然死)라는 이름으로 종종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또 주위에서 직접 경험하기도 하는 일이었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공무원, 저녁 늦게 퇴근하여 잠자리에 든 후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택시 운전기사, 출장근무 중에 사망한 기업체 중견간부 등,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면 아무 일도 아닌 무수히 보도되는 사건사고의 한 부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우리들과 전혀 다른, 어떤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리고 성실히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원의 한명이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에 이러한 죽음은 더욱 충격적이다.

이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 2. 돌연사란 무엇인가?

요즘들어 자주 사용되는 이 돌연사(突然死)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 그대로 해석하여 예상하지 못한 죽음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였다. 그러다가 근래에 사회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사용상 혼란을 피하기 위

해 “뚜렷한 외적인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내부 원인이 발생했는지 2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판단으로 죽을만한 원인이 없어 보이는데 갑작스럽게 죽은 것을 말한다.

이것과 비슷한 말로 “과로사(過勞死)”라는 말도 자주 쓰이고 있다. 이 말은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신조어인데 굳이 그 의미를 설명하자면 돌연사 중에 주위 상황으로 추측하여 과로가 그 원인이 되었거나 원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엄격히 구분하자면 이 두가지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로사는 돌연사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서 돌연사가 죽음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비교적 의학적인 표현이라면, 과로사라는 말은 죽음의 원인에 주안점을 둔 표현이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후에 나오는 돌연사라는 표현은 두가지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 3. 돌연사의 특징

돌연사는 대개 40~50대의 장년층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돌연사라는 말 자체가 예기치 못한 죽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신체적으로 약한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돌연

사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는 탓도 있다. 그러나 40~50대의 나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이 나이에 돌연사가 많이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나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기에 해당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가장 책임을 느끼는 나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두 일생을 통해 가장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육체적인 능력은 20~30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다. 차츰 이 차이를 생각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데에서 40~50대의 위기가 생긴다.

물론 돌연사는 흔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전체 사망자 수에 비해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어서 빈도를 나타내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만 이 죽음이 가지는 여러가지 특성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며 많은 관심을 끌게 되어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돌연사가 나타나는데는 시간적인 특징이 있다. 하루 중에 유달리 아침 6~8시 사이와 오후 6~8시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이 시간대는, 돌연사라고 하면 직장에서 한참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영화속의 장면을 상상하던 사람들에게는 뜻밖이겠지만 돌연사가 생기는 과정을 알고 나면 충분히 수궁이 가는 부분이다. <계속> (본 내용은 '93. 11. 19자 보건주보에 게재된 것임)